

엔교지 절 지키도

지키도(食堂)는 다이코도(大講堂), 조교도(常行堂)와 이어져 있으며, 엔교지 절의 미쓰노도(三之堂)로 알려진 세 건물의 서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키도는 승려가 수행하고, 잠자고, 식사를 하는 거주 공간으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고시라카와 법황(1127~1192)의 칙원에 따라 1174 년에 최초의 건물이 건설되기 시작했지만, 몇 번의 자연재해에 의해 원래 건물과 그 뒤에 지어진 건물도 파괴되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5 세기 중반에 착공되었는데, 일본 최대의 2 층 건물 건축으로서 그 규모가 크고 복잡하여 완성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지키도는 약 5 세기에 걸쳐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키도의 2 층 부분은 해체 수리의 일환으로서 1963 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긴 건설 과정 때문에 지키도에는 몇 가지 건축상의 실수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2 층 남동쪽 모퉁이의 지붕은 조교도의 지붕과 겹쳐져 있으며 이는 2 층의 노대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현재 지키도의 1 층은 방문자가 공덕을 쌓는 수행인 사경(경전을 베끼는 것)을 하는 장소로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 층에는 엔교지 절의 길고 풍요로운 역사에서 빛을 발했던 많은 종교적·문화적 유산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14 세기에 제작되어 깨달음에 이르려는, 흔들리지 않는 기원을 상징하는 금강살타상이 있습니다.

지키도는 일본 중요문화재, 금강살타상은 효고현 중요문화재입니다.